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6월 17일 (제95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최대의 자원

요즘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다. 내가 몇 차례 집회를 다녀온 나라이기에 더욱 그렇다.

베네수엘라는 사실 세계 산유국 가운데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경제가 말이 아니다. 파산직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마땅히 내세울 자원이 없다. 넓지 않은 국토도 허리가 잘렸고, 또 대부분이 산으로 이뤄져있어 조건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나는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를 비교하면서 최대의 자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한 나라의 운명을, 한 기업의 운명을, 한 가정의 운명을, 그리고 개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당연한 결론 아닌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니 말이다. 쉽게 말해 세상만물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 마땅한 깨달음이다.

세상은 자원의 고갈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 망령되어 행할 때 망한다. 세상을 지으신 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무엇을 못하시겠는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당신께 간구하는 자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풍조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계신다. 집을 떠난 탕자를 늘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인류 최대의 자원, 최고의 자원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베트남(Vietnam)은 1975년 월남패망 후에 월맹에 의해 공산화된 나라이다. 공산국가가 제일 허용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종교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의 기본 모토이기 때문에 절대 종교를 허용할 수 없다.

공산화된 베트남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핍박과 환난을 자초하는 길이요, 더욱이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순교의 길이다. 이번 내한한 베트남 총회장 일행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눈에 그려진다. 그래서였을까. 어느 나라 목회자의 방문 때보다 풍성한 대접으로 이어졌다. 6일 도착하여 인천교회를 둘러본 뒤 송도 경원재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하고 호텔에 여장을 풀 목회자 일행은 수요일저녁 예배에 참석했다.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

성한 식사와 정성어린 선물을 제공해주었다. 모두들 선지자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해 베트남 목회자 일행을 섬겼다. 베트남 목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말 자신들을 예수님께 하듯 대접하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기도원에서역시 감동의 연속이었다. 일찍 기도원에 내려가신 총회장 목사님과 한복을 곁에 입은 광주교회 성도들, 그리고 전라노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들, 기도원 식구들이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목사님은 “여러분을 이 기도원에 내려오게 한 것은 여러분이 나를 닮기를 원해서이다. 나는 무릎으로 이 교단을 세웠다.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능력 받은 길을 오직 기도다. 기도의 부족은 모

막의 길이요, 눈 덮인 산야를 걸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며 감회에 젖기도 하셨다.

베트남교단연합회(VEF) 회장이며 장로교단 총회장 호 쩡 코아(HO TAN KHOA) 목사는 “목사님이 이단 소리를 듣는 것은 믿지 않고 죽은 영이 귀신이 된다는 것 때문 아니냐?”며 질문했다. 이에 목사님은 성경구절을 일일이 찾아주며 증명하셨다. 그러나 목사님은 “뱀이 들어왔으면 먼저 잡아야지. 그것이 무슨 뱀인지 토의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든 쫓아내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어 한 시간 동안 베트남의 복음화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베트남 목회자들에게 방문기념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

들을 보면서 그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단에 오른 목회자들은 각각 자신을 소개하고 방한소감을 피력했는데, 특히 베트남 교단연합회(VEF) 수석부회장이자 가나안교단 총회장 왕 흐우 히우(NGUYEN HUU HIEU) 목사는 “교회 이름이 예수중심교회인데 무슨 이단이겠느냐?”고 말해 성도들의 박수를 받았다.

다음 날, 호텔에서 조찬을 마친 일행은 리무진 버스를 타고 기도원으로 향했다. 기도원에 가는 길에 천안교회 김기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풍

든 것의 부족이다.”라고 하시며, 기도원에 새겨진 문구 하나하나를 설명하셨다. 사택 잔디에 차려진 만찬장은 어둠이 내리면서 더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만찬에 앞서 선물이 증정되었다. 자개로 만든 경대며, 장인이 만든 부채 등 푸짐한 선물이 전달되었고, 멋진 저녁식사가 이어졌다.

기도원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내실에서 진행된 장장 5시간의 만남이었다. 목사님은 목회 33년의 세월을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말씀하셨다. 물 없는 사

기도했다. 베트남 목회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높여 기도했고, 목사님은 일일이 안수하셨다. 올해 75세인 침례교단 증경회장 왕 통(NGUYEN THONG) 목사는 능력을 받아 앞으로 30년 더 일하고 싶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다. 목사님은 ‘나도 30년 더 일할 거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같이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일하자.’라고 격양된 어조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3면에 계속)



서울교회 방문



예루살렘기도원 방문



하행길에 오찬을 제공한 천안교인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9:1~24)



신앙과 삶의 개혁을 이루자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출마자들이 하나같이 외쳤던 구호는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뽑아주면 좋은 세상, 좋은 나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개혁이나 혁신을 주장한 것입니다. 제발 당선자들이 자신들의 선거공약을 잘 이행해서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개혁(改革)이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관행, 잘못된 환경, 잘못된 습관을 깨는 것입니다. 이는 혁신(革新)이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혁신이 뭐니까? 가족을 벗기는 변화입니다. 대변혁입니다. 묵은 풍속, 잘못된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옆 사택에서 생활하던 목사님 내외가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목사님은 화장실에 옆에 있던 낚요강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마침 그 낚요강은 교회를 두루 살피던 한 대장장이 장로의 눈에 띄었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의 생신이 되어 사택에 온 장로는 목사님께 보자기에 찬 낚요를 내놓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 귀한 것을 보고 반색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장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 이 근처에서 낚요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련해서 이렇게 낚요, 낚요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에 목사님 내외는 낚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개혁이요, 혁신입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당시 유럽은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지만 신앙은 땅에 떨어지고 오직 겉모습과 형식의 신앙만 남아 있었습니다. 1517년 루터가 분연히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불을 점화시켰습니다. 루터의 가슴에 개혁의 불을 당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 사원을 짓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 방편으로 교회가 면죄부를 판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하여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는 종교개혁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면죄부가 옳지 않다는 뜻으로, 면죄부에 관한 95개 조항에 대한 질의서를 1517년 10월 31일 비텐부르크 정문에 게시합니다. 여기에서 개혁의 불길은 온 유럽을 덮게 되었습니다. 이 개혁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늘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딱 한 번 '개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히 9:9~10).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해 제사제도가 있었습니다. 제사는 회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성소에는 등대와 상, 진설병이 놓여있고, 지성소에는 향로와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제사장들이

이 수시로 드나들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으나 지성소에



총회장 이초석 목사

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불완전한 규례들과 의식들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보내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도록 개혁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9:11~12).

그 하나님은 우리도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2~24). 잘못된 습관을 잘라버리고 새 사람이 되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살다보면 어느덧 세상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에 휩싸여 살게 됩니다. 오죽하면 대 사도인 바울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1~24)라고 한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지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새사람이 된 것처럼 말합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버려야 나비로 변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혁이나 혁신이 가족을 송두리째 벗겨내는 아픔이 있듯, 애벌레가 고치를 벗기 위해 애쓰고 힘쓰듯 옛사람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기에 애써야 합니다. 그래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막9:43~47).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

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등등, 과거의 인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새 사람이 됩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옛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길은 인격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충만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룰 수 있고,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요3:7). 그러면 산 위의 동네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환자에게 위로는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개혁을 하겠다고 미국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세계로부터 격리되고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의 삼성이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자'라는 마음으로 개혁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개혁해야 합니다. 혁신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잘라내고, 부정적이고 나태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습관이 당신을 실패자로, 낙오자로 만들 것이고, 당신의 미지근한 신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토하게 만들 것입니다. 개혁은 입에 칼을 물고하는 것입니다.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실행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마10:40)



(1면에 이어)

상경 길에 정읍교회 김상기 목사 부부가 베트남 목회자들을 대접했다. 모두에게 양복과 와이셔츠, 벡타이까지 선물한 것이다. 특히 침례교회 증경회장 왕 퉁(NGUYEN THONG) 목사의 구두와 지갑이 낡은 것을 보고는 사드렸는데, 지갑 속에 돈을 넣어 드리면서 김상기 목사는 “우리 목사님이 지갑을 선물할 때는 돈을 넣어드리라고 했다. 이 지갑에 돈이 평생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왕 퉁 목사는 너무 감사해서 김 목사의 손을 한참동안 잡고 있었다. 목회자 일행은 목사님 사무실이 있는 कै피탈 호텔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액자를 설명하시며, 매사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고 당부하셨다. 역시 여기에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인상적인 것은 대형 캐리어였다. 목사님이 선물이 많

은 것을 아시고 넣어 가져갈 대형 가방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다. 캐리어를 받은 왕 흐우 허우 목사는 “모든 선물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렇게 선물을 넣어갈 가방까지 챙겨 주실 줄은 몰랐다. 이 건 목사님의 진심이요, 사랑이다. 너무 감동받

았다.”고 말했다. 목사님의 배려에 그들이 탄복한 것이다. 저녁 7시, 롯데호텔에서 만찬이 이어졌다. 목사님은 “누구나 처음은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을 같이 하는 사람을 원한다. 우리는 이제 동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한 가지이니 끝까지 같이 가자. 나는 여러분이 물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물은 그릇을 닦하지 않는다. 위대한 사람은 환경이나 여건을 닦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마라. 목숨을 걸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제 우리는 시작이다. 시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데, 시냇물이 강에 이르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시련을 거쳤겠는가. 쉬운 일은 없다. 더욱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렇다.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베트남 복음

화에 나서자. 그것이 당신들의, 아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우리는 사명자다. 사명(使命)이란 부리는 이에게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사명에 부도내지 마라. 부도나면 사주가 옥에 들어가는 법이니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 대업을 이루는 일에는 사명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자 베트남 목회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했다.

다음 날에는 남산타워에서 식사하면서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며, 베트남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자유롭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저녁에는 예정에 없이 불쑥 총회장 목사님이 그들의 숙소로 나타나셨다. 목사님은 다른 약속을 취소하고 오셨다며, 남대문 먹자골목으로 인도하셨다. 부슬부슬 비가 내렸지만 함께 걷는 낭만이 있는 밤이었다. 먹자골목에서 족발과 생선구이로 저녁식사를 했다. 목사님은 “열 명의 동지보다 한 사람의 적이 무서운 법이다. 아무리 철통보안이라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며 베트남 복음화를 위한 결속력을 다지셨다.

주일, 베트남 일행이 교회에 도착하자 청

년대학부에서 태극기와 베트남 국기를 흔들며 환영했고, 작은 선물도 전달했다. 3부 예배에는 왕 퉁 목사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렇다. 베트남의 복음화는 인간의 힘으로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이번 베트남 목회자들의 통역을 맡은 왕 홍 하이(NGUYEN HONG HAI) 전도사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인재다. 그는 더욱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목사님이 베트남에 오셨을 때 완벽한 통역을 하고 싶다고 했다.

사선을 넘어 한국에 온 목회자 10명, 그들은 베트남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부탁했다. “베트남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이초석 목사님이 베트남에 오셔서 복음의 불을 댕길 수 있도록 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목회자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 성경예세이 ::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자

여보게!
우리는 잠 잘 때 ‘안녕히 주무세요!’ 하지 않는가. 그 말이 그냥 인사가 아니더구먼.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요즘 새삼 실감한다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네. 내일 만나기로 한 내 지인 중 한 사람이 밤새 다른 세상으로 가버렸더라고. ‘내일 만났시다.’ 했는데 죽었다고 연락이 왔다네. 참 황당했지. 진실로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든 생각이 있네. 전도는 내일로 미루지 않고 바로 해야 한다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도를 했네. 그런데 ‘다음에 믿지.’ 하며 안 듣는 거야. 나는 전했으니 마음에 가책은 없지만, 그 영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네.

여보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가 있는가? 지금 전하게. 자네의 내일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내일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네. 그 친구처럼 밤사이에 유명을 달리하면 방법이 없지 않은가.
요한복음 4장에 ‘넋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는 말이 있으나 주님은 “눈을 들

어 발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요4:35)라고 말씀하셨네. 지금이 영혼추수의 때라는 거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전도하라는 결세. 마태복음 25장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물어 지체하지 말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처럼 즉시 나가 영혼을 추수하라는 말씀이라네.
전도는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자네를 위해서야. 추수한 영혼은 자네의 상이요 면류관이 되거든. 바울은 자신이 추수한 영혼을 향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빌4:1)라고 했다네. 내가 나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에서지.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이야. 그 중 전도는 절대 뒤로 밀려서는 안 되는 영(0)순위 임을 잊지 말게.
또한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미루지 말고 오늘 하게. 떠난 뒤에 사모곡이 뭐 필요하겠나, 망부석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오늘하게. 지금 일어나 나가게.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일을 오늘 하게. 내일은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朋友

강대국이 약소국에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약소국 왕은 싸워보야 쑥대밭이 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신을 보내 ‘어떻게든 전쟁을 막으라’고 명했다. 사신은 무슨 말을 하여야 강대국 왕의 마음을 돌릴까 고민하면서 강대국으로 갔다. 강대국 왕 앞에 선 사신은 “왕이시여! 내가 보니 우리 왕은 초승달 같고 대왕은 보름달 같은 왕이십니다. 보름달 같은 왕께서 초승달 같은 왕을 쳐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보나마나 우리가 지오니 전쟁을 그만 두시지요.”하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강대국 왕은 기분이 좋아서 전쟁을 포기했다.
전쟁을 그치게 하고 돌아온 사신은 그대로 보고했다. 왕은 수고하였다고 치하하면서 상을 주었다. 그러나 상을 주자마자 빼앗고 칼을 빼어 들었다.
“너는 전쟁을 끝낸 공로로 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를 무시한 죄는 사형이다. 저쪽 왕을 보름달로, 나를 초승달로 비유하여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그러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때 사신이 말했다. “왕이시여,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보름달은 점점 작아지는 달이지만, 초승달은 점점 커지는 달이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다르다. 지혜로운 말이 잘 말한 것이다(잠 12:18).
벤자민 프랭클린에게는 존경하는 스승 한 분이 있었다. 그 스승은 학식도 많고 인격도 좋았으며 생활도 검소하여 존경받는 스승이었다. 그 스승의 집에 들어가려면 문이 낮아서 고개를 많이 숙여야 들어갈 수 있었다.
어느 날 프랭클린은 인사차 스승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들어갈 때 고개를 꼭 숙이고 들어갔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답소를 나눈 프랭클린은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깜박 잊었다. 그래서 문에 이마를 세게 부딪치고 말았다. 이를 본 스승이 말했다. “자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딪치는 일이 많을 걸세! 그러나 스스로 머리를 꼭 숙이면 부딪치는 일이 없을 것 일세!”
그 스승의 말이 그를 포용력이 있는 정치가로 만들었다.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자세와 말은 원활한 인간관계를 만든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주님께로 돌아가자! U-turn



지난 6월 8일과 9일 양일 동안, 구로구민 회관에서는 특별한 부흥제가 있었다. 이 부흥제는 예수중심교단 서울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까 지 전 교육부서가 연합으로 함께한 행사로 ‘U-tum(주님께로 돌아가자)’이라는 주제 로 이루어졌다.

이 부흥제를 준비한 것은 우리 예수중심교 단의 미래인 젊은이들에게 죄악을 끊고 다 시 한 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함과 함 께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었 다. 2018년 세상은 많은 흉악범죄, 성범죄 (미투운동), 음란, 동성애 등 다양한 위험 에 우리 젊은이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죄악에 대 하여 무뎠을 때가 있다. 그러나 부흥제 자 리에 참석한 예수중심교회 젊은이들은 ‘U-tum’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자들

이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그 어 느 때보다 새신자를 전도하여 참석 한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학교 친구 및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며 이 세 상의 모든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희망하는 아름다운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였다. 부흥제는 찬양과 스킷드라마, 이시대 목사님 의 설교로 이어졌다.

‘스킷드라마’에서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크리스천(고등학생과 직장인) 2 명이 등장하여 이들이 ‘진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에 대한 모의재판이 이루어졌다. 이 연극 말미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어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진짜 크리스천’이라 주장 하는 2명을 모른다고 하시자 장내는 숙연 해지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엄숙 하게 전달되었다.

강사로 서신 이시대 목사님은 ‘죄의 멍에 걸리지 말라’는 주제로 설교하셨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죄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가 아닌 나의 마음, 나의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모든 죄는 욕 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마귀가 주는 것으로, 욕심이 잉태한 죄는 내가 어 쥘 수 없이 짓는 것이 아니요, 욕심을 버리 면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인물 요 셴은 보디발 부인으로 인해 성공이 보장되 어 있었지만 죄의 멍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그 길을 끊어 버립니다. 또 얼마 전 고인이 된 LG 故 구본무 회장은 기업의 많은 이익 등 욕심을 버리고 2등이 되는 길을 선택했 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천으로 구분 지어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보이는 성공이 나 눈에 보이는 소득이 남들보다 조금 적으 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고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길이라면 옳은 길 입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이 세상 의 모든 것, 돈, 명예, 여자, 나라까지 다 가 졌지만 모두 다 헛되다’고 말하며 ‘심판이 있기 전 젊음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 하라’(전12:1)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 날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은 최고 의 보람을 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마귀와 함께 하고 있는지 체크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죄의 옷이 아닌 점도 없고 흠 없고 순전 한 모습(벧후3:14)으로 오길 바라십니다.”

이번 부흥제를 통해 우리 예수중심교회 젊 은이들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하나님께 드 립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인생의 가장 귀 한 시간, 그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게 된 시간이였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 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시110:3).

기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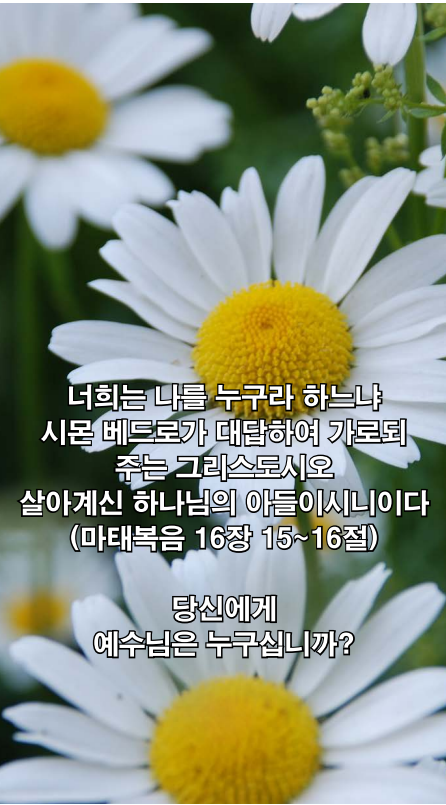
박탈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하 시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 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은 상전에게 주님을 섬기듯 하고, 상 전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하신다. 이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에 우리는 자 신을 그 주체에 대입시킨다. 자녀인 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인 나는 자 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장인 나는 직 원들과 거래처에 갑질하지 말고, 직원인 나는 회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야한다. 그런데 참 힘이 들 때가 있다. 나 의 행위가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다. 비유 를 하자면 내가 가진 문장 하나가 전부가 아닌 앞뒤 문맥에 있다고 할까.

부모인 내가 만약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 하기 힘든 언행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것은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약속된 축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자녀인 내가 늘 부모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행동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누릴 수 있 는 말씀의 열매를 박탈하는 것이다. 사장 인 내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면, 믿는 직원들이 주님을 섬기듯 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막고 있는 것이 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겠다.

이렇듯 인간관계는 나의 일방적인 노력 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 씀을 상대방을 질책하며 요구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축복의 기회를, 말 씀의 열매를 건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셨을까. 상대방에게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그것 에 합당한 삶을 사는 내가 되기를 오늘도 다시금 되뇌인다.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약식동원 여름 과일 수박편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올해 여름도 어느 해 못지않은 더운 날 씨를 예상하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갈증을 해결하 고자 카페에 들어가 보면, 과거와는 다른 과일주스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수박주스가 눈에 많이 보입니다. 수 박은 보기만 해도 더운 여름 가슴을 시원 하게 해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갈증을 달래기에 좋은 제철 과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3가지 성질(性 質)이 있는데 따뜻한 성질, 시원한 성질, 평이한 성질로 크게 나뉩니다. 따뜻한 성 질로는 고추, 파, 마늘, 생강, 흑설탕, 계 피, 닭고기, 소고기, 개고기, 석류, 검은 깨 등이 있으며, 차가운 성질로는 밀가 루, 메밀, 팔, 수박, 상추, 사과, 참외, 배, 굴, 김, 돼지고기 등이 있습니다. 평이한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는 고구마, 양배추, 시금치, 귤, 포도, 오리고기, 오징어, 흰 설탕 등이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 진 음식은 몸의 기혈순환을 촉진시키고 차가운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몸을 활 발하게 하는 효능이 있으며, 차가운 성질 을 가진 음식은 몸의 열을 낮추어주고,

염증을 줄이거나 출혈에 도움이 됩니다. 평이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성질 의 음식은 계절에 상관없이 오랜 기간 장 복을 해도 되는 보약류 등으로 많이 활 용됩니다.

차가운 성질로 여름철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수박은 달고, 서늘하며 독성이 없습 니다. 심장, 위장, 방광의 장부로 들어가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열을 내려주고 더위를 해결해주며, 갈증을 풀어주고, 소 변을 시원하게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능 이 있습니다.

수박은 박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으로 아프리카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1450)에 수박의 재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으며, 그 이전에 들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박은 수분함량 이 높고 유리당 함량이 많아 단맛이 강하 며, 항산화기능을 가진 라이코펜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땀이 많이 흐르는 여름에 먹기에 적합합니다.

수박을 먹을 때 걸러내는 수박씨도 효능 이 있는데, 수박씨는 달고 서늘하며, 독 성이 없고 갈증을 없애며, 혈압을 낮추

고 변비나 기침을 다스립니다. 수박껍질 도 성미가 비슷하여 몸이 붓거나, 소변 이 시원치 않거나, 열이 많은 증상을 다 슥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과일 하 나에도 어느 부분 하나 버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름철 더위를 타거나 감기후유증으로 혀가 마르고 갈증이 심하거나 정신이 혼 몽할 때 수박주스를 1~3잔정도 마시게 되면 열이 내려가고 소화가 편안해지며 정신이 맑아지게 됩니다. 단, 수박이 모 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으며, 소화기관이 차가운 체질의 소음인 일부에서는 수박 을 많이 복용 시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마시거나, 너무 차갑게 먹지 않거나, 수박의 서늘한 성질에 추가 로 따뜻한 성질이 있는 흑설탕을 가미하 거나, 호두나 잣 등을 같이 먹는 것도 음 양의 조화를 맞추어서 내 몸에 맞게 음식 을 섭취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 니다. 무더위에 시원한 수박과 함께 건강 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